

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

골방

"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"(마 6:6).

예수님은 참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.

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.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
즉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기도나 자기의 기도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.

여기서 골방에 들어간다는 뜻은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.

즉 짝기도, 공중기도, 통성기도, 산기도 등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.

또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유혹을 끊어 버리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며,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간사한 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.

- 하용조